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발행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 주소 02862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20길 27 (빛의사람들) 전화 02)921-5093  
FAX 02)921-7847 E-Mail kyodo@catholic.or.kr 홈페이지 www.catholic-correction.co.kr

머리글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 살다보면 살아진다

몇 주 전, 서울구치소 여성 수용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음악 봉사자께서 불러주신 특송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후렴구인 '그저 살다보면 살아진다'라는 노랫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그 노래의 제목은 '살다보면'이고, 뮤지컬 서편제에도 나왔고, 또 어느 오디션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다시 불러졌다고 합니다.

'그저 살다보면 살아진다'라고 찬찬히 그리고 애절하게 불러지는 그 노랫말이 제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 수용자 자매님들에게도 그렇게 크게 다가왔나봅니다. 다들 눈시울이 붉게, 그리고 축축해져 있었습니다. 재판과정도 험겁고, 전해져오는 가족 소식도 더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렇게, 하루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앞길이 막막하고, 한발 한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무거운 우리 수용자 자매들에게 그 '살다보면 살아진다'는 노랫말이 큰 위로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살다보면 살아진다, 저 역시 되뇌어 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참 묘합니다. 어쩌면 '살다보면 살아지니깐, 너 알아서 살아봐'라는 무관심, 무책임한 말로 들릴 수도 있을텐데, 아무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가 부르며 찬양하는 시간 자체가 위로였기에, '살다보면 살아진다'라는 말이, '하루 하루 험겁지만 우리 함께 살아보자, 그러면 살아질거야'로 다정한 위로의 말로 다가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후원회원님들이 함께 보내주는 정성, 함께 하는 마음이 말마디에 깊게 전달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살다보면 살아진다, 자꾸 읊다 보니 살다보면 사라진다고 들립니다. 어찌 죄책감과 그 무게감이 사라질까요. 그러나 상처와 아픔들은 사라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미움과 당시 무거워 끔찍했던 그 시련들의 아픔들은 살다보면 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 후원회원님들도 혹 앞날에 대해 걱정하고 있으시진 않으신가요. 지금껏 한땀 한땀 최선을 다해 살아 오셨듯, 잘 살아내실 거예요. 힘내세요. 살다보면 살아질거예요. 그리고 사라질거예요.



## 청구성당 후원회원 모집 미사



5월 20일(토)~21일(일) 전 부위원장 이호섭 요셉 신부가 사목하고 있는 청구성당에서 후원회원 모집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많은 신자분이 교정사목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후원회원 모집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허락해주시고 도움을 주신 청구성당 이호섭 주임 신부님과 신자분들, 그리고 후원회원이 되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6월 5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가 가톨릭회관 3층 강당에서 이중현 요셉 신부의 주례로 봉헌되었습니다. 이 미사에는 특별히 6월 축일을 맞이한 최남식 베드로 신부(살레시오회)의 축하식도 진행되었습니다. 최남식 베드로 신부는 살레시오회 소속으로 고봉중고등학교와 분류심사원(청소년 교정시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남식 신부님을 위해 영적 예물을 준비해주신 봉사자님을 감사합니다.

## 사회사목국 서품 2년 차 사제 연수



6월 8일(목) 성앵베르센터에서 서품 2년 차 사제 연수 중 사회사목국의 13개 위원회가 부스를 준비하여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연수에 참석한 17명의 서품 2년 차 사제들은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스에 방문하여, 수용복도 입어보고 활동사진과 50주년 기념영상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수용자, 출소자, 피해자, 봉사자와 후원회원들에 대하여 전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하여 2년 차 사제들이 교정사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전국 성심회(천주교 신자 교도관 모임) 제27회 정기총회

6월 10일(토)~11일(일) 공세리 피정의집에서 전국 성심회(천주교 신자 교도관 모임) 제27회 정기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진행된 정기총회는 더욱 뜻깊은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였습니다. 수용자들을 위해 몸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일하는 교도관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그리스도를 닮은 교도관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 서울남부교도소 공장 레지오 1년을 돌아보며

이인현 프란치스코\_ 서울남부교도소 공장 레지오 봉사자

코로나로 약 3년간 중단되었던 레지오 회합이 매주 수요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정미 체칠리아 자매님에게 봉사자로 참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야 할 역할을 여쭙더니 같이 기도하며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데 “훈화”는 반드시 해야 한다기에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제가 아는 레지오 훈화는 영적 지도자 (신부님 혹은 수녀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봉사자를 구할 때까지 임시라도 맡아 달라는 부탁이 이렇게 1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서울남부교도소 공장 레지오 단원의 활동을 참관해보니 출석률은 거의 백 퍼센트에 활동 보고 내용 중 묵주기도는 평균 백 단 이상, 성경 읽고, 쓰기는 기본이며 궁금중에 대한 토의와 질의응답 또한 매우 진지하고 교본에 충실한 모범적인 회합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는 어떠한 훈화를 할까? 고민 끝에 신앙에 관한 서적, 교양, 인물 등에 관한 독서를 통하여 전달해 드릴만한 내용을 발췌하여 이야기 형식으로 훈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다윗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패배할 때의 교만과 분노를 동시에 만족시킬 문구를 반지에 새기도록 한 솔로몬의 지혜를 통하여 지내기 힘든 나날을 극복해 가는 데 도움이 될 의미를 갖는 “이 또한 지나가리니,”의 유래 / 여러 가지 암을 앓다 보니 기적이 아닌 날이 단 하루도 없었으며, 심지어는 암으로 쓰러지게 만든 것도 다시 일어나는 힘을 주시기 위한 하느님의 배려에 감사했다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을 저술한 (故)장영희 교수님의 이야기 / 불의의 교통사고로 두 눈을 실명한 아들에게 한쪽 눈을 이식하여 세상의 빛을 보게 해주신 것도 하느님의 은혜라고 감사를 드리는 방물장수 할머니의 이야기 속에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본받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훈화가 끝나고 “아멘”하면 박수로 답례를 해주는 하늘의 문 뽀레시디움 모든 단원들이 주님의 영성을 실천하고 달아가는 신앙생활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훈화를 준비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예수님께서 함께하셨던 약자

양정규 베드로\_ 신학대학 수련휴학(프락티쿰)

저는 어렸을 적 예수님의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그려보곤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바리사이들을 꾸짖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 기뻐하시는 예수님 등 여러 가지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세리, 창녀, 빈민처럼 사회적으로 멸시를 받거나 인간적인 삶을 누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약자들과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들에게는 참으로 측은한 마음이 들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참 멋지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정사목 체험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함께하셨던 사회적 약자의 기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회적 약자의 기준을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측은함과 연민의 감정이 느껴지는 이들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가령 노숙자, 빈민, 결식아동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연민의 감정이 느껴지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함께하셨던 약자들도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수용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멸시하고 배척하기 때문에 이들이 진정 예수님께서 함께한 약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의 논리로 접근하여 교회마저도 그들에게 등을 돌린다면 분명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 역시 처음부터 연민의 감정을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용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짧은 시간을 보내면서 연민의 감정이 들었고, 부족하지만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로서 분명 수용자들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꼈을 것이고 그들을 사랑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민의 감정이 처음부터 느껴지지 않았던 저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도 하다 보니 조금씩 감옥에 갇혀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연민의 감정이 먼저 생겨나 그들과 함께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셨기에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덕이 갖든 마음이 이미 있기에 덕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일 수 있지만 덕스러운 행동을 따르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진정 미덕이 갖든 마음,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교정사목 체험을 하면서 연민의 감정이 느껴지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그러한 연민의 감정조차 느껴지지 않는 수용자들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 너무나 의미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 “사람은 언제인가 한번은 자기자신 밖으로 나가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교황 프란체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 88항)

정유석 안셀모\_ 신학대학 수련휴학(프락티쿰)

저는 처음부터 국내 실습 장소로 교정사목을 원했고 첫 지망으로 교정 사목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원하던 대로 교정 사목에서 실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교정 사목을 지망했을 때 지망 이유를 제출했던 글에서 요즘 세상에 많은 이들이 법적인 분쟁을 겪고, 정말 많은 이들이 교정시설에 간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유로 한 집 건너 한집마다 있는 가정사이고, 우리 근처에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렇기에 비록 누군가의 잘못을 못 본 척 넘어가자는 것은 아니지만 점점 사라져 가는 관용을 다시 전하는 경험을 위해 교정 사목을 지원한 것입니다.

사실,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을 통해 스스로 지닌 잘못과 죄책감을 위로받고 용서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 비장하고 무거운 마음과 어떤 희망을 품고 실습을 시작했으나, 스스로 깨달으려던 과정은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얻겠다는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다 보니 실습하면서 하루하루 쌓인 경험들, 이야기들, 보고 들은 것들이 자연스레 녹아나면서 기도와 묵상 속에서 하나씩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금 수용자들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교정 사목의 모두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교정시설과 수용자가 마치 눈앞에 없고,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매일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문득 그들의 존재를 생각하게 될 때 자신과는 다른 존재, 그들은 지워야 하고, 버려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스스로를 보다 나은 사람이라 여기며 사는 듯합니다. 그러나 제가 실습을 하면서 끊임없이 느낀 것은 ‘수용자와 나는 무엇이 다른가? 내가 저곳에 없으리라는 법이 정해져 있는가?’란 생각과 ‘하느님 앞에서 그저 붙잡힌 죄인과 붙잡히지 않은 죄인’이란 차이만 있을 뿐이란 것이었습니다.

복음에서는 ‘사랑’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 묵상을 하다 보면 주님과 제자들의 만남, 성모님과 엘리사벳의 만남, 세례자 요한과 그리스도의 만남이 떠오릅니다. 이 장면들을 묶어주는 단어는 만남입니다. 애정과 애절함 등이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애정과 애절함이 합쳐져 점점 피어오르는 감정이 ‘자비’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자비와 사랑의 하느님으로 불리시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한히 사랑과 자비를 주시기 때문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황금과 비싼 유향을 바치기보다는 얼굴도 모르는 이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 누군가 번듯하게 살길 바라며 후원하는 마음, 손과 발의 힘으로 찾아가 만드는 노력이 자비와 사랑이 되어 하느님을 받들어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범죄자란 틀 안에서 수용자들을 형제로, 자매로 여길 생각조차 하지 않는 풍조



를 가지고 누군가는 형제이고 누군가는 철저히 이방인으로 여기는 듯합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문득 떠오른 복음 구절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를 한다면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마태 5, 46-47) 실습하기 전 제가 느낀 것처럼 교황님께서 말씀하시길, ‘오직 득실을 따지는 계산만이 존재한다.’ 하십니다. (「모든 형제들」 210항) ‘잘못을 저질러 비난받을 수 있는 사람들조차 저마다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지니고 있음’(「모든 형제들」 217항)을 말씀하실 때 스스로 이웃을 판단하고 선별하며 살았던 시간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터부시되는 이들조차 형제로 여기는 것이 자신 밖으로 나서는 여정이란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최악의 범죄자에게서 그 인간의 존엄을 부인하지 않을 때, 나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모든 형제들」 269항)이라고 하실 때, 우리는 어쩌면 가장 터부시하는 존재들로부터 우리가 얻을 하느님의 자비가 어떤 모습일지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고형을 받은 형제들과 미사를 했었습니다. 같은 성찬의 식탁에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같은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나눠 먹고 마셨을 때 ‘식구(食口)’가 됨을 느꼈던 순간, 그 뿌듯함과 감사함은 하느님의 자비를 알려주었습니다. 해서 결국 세상이 터부시하는 형제들을 관계에서, 생명에서, 제도에서 절단하는 것은 우리의 길이 결코 아님을 몸소 배우게 된 실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습 기간, 제 안에 피어난 단어들은 치유, 용서, 화해, 평화였습니다. 화해와 용서가 분명, 누군가의 부당함에 굴복하거나 그것을 묵인하는 인정이거나 부당함을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오히려 ‘용서하되 기억하는 것’이며, 억지로 시켜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생을 통해 이뤄지는 ‘과정’ 자체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수용자들과 함께 미사를 드릴 때 강론 말씀 중 ‘하느님께서는 자격이 아니라 자질을 보십니다. 죄에 대해 반성하는 마음, 고통 준 이의 아픔을 헤아리는 마음을 보십니다.’란 말씀에서 제가 처음 얻으려 한 깨우침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너무나 귀중했던 실습 간, 받고 얻은 것들을 모으고 모아 적어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용서란 참으로 어려운 것, 그러나 불가능한 것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얼마나 큰 것을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인지 느끼는 사랑 체험이란 것’, ‘죄책감은 분명 지난 잘못의 무게를 알게 하는 것이지만 절망으로 자신을 밀어 넣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잘못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어 너그러울 수 있게 하는 것’, ‘용서는 결국 자신에 대한 용서를 요구하며 이것은 스스로에 대한 면책 특권이 아니라 아파하는 이를 돕는 것, 잘못에 사죄하는 것, 누군가를 돕는 것, 즉 보다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첫 입장권이란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 주었다.”(마태 25, 36)

늘 감사한 송 신부님께,

언제나 한발 앞서서 기쁨의 소식과 희망을 나눠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부님께 성사를 받은 날, 기쁘게 그분을 가슴과 영혼에 모시고 사동에 돌아오니 손으로 꼭꼭 눌러쓰신 형제적 사랑 가득한 부활 카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허물과 죄를 가득 안고 늘 그분의 자비에 그리고 사랑에 의지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미립자 같은 존재다 보니, 그리고 스스로 자아가 오로지 하느님께 의탁하고 신앙하지 못하는 탓에 부활의 기쁨을 여전히 실재화 시키지 못하고 있어 숨이 깊습니다. 그래도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투영시켜 삶을 살아내시는 신부님 같은 분의 사랑에 부활의 빛과 희망을 맞이해 보기도 합니다.

벌써 9개월의 시간을 이곳에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맞닥뜨린 현실의 절망에서 그리고 스스로가 누벼놓은 허물들과 그에 따른 죄책감에서 스며든 상실감은 희망할 수 없는 곳에서 희망하게 되고, 그분께 의탁해야만 순간순간을 살아 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신부님께서 계셨고요. 구속되고 3개월째 처음으로 미사를 드리고 성사를 받은 날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때 성사의 은총과 그 실재성과 실재 안에서의 그분을 접하지 못했다면, 그 시기를 견뎌내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여전히 영어의 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찾아오는 두려움과 가책과 상실감으로 몸살을 앓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살아낸 시간만큼, 또 그 속에 내 인식과 느낌과 상관없이 함께해 주셨던 그분의 자비로 순간을 넘어서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출역'을 신청해서 사동청소부라는 직군으로 일하고 있어요. 하루 대부분을 방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수용자들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식사를 배식해주고, 온수 배급과 편지 수거·배달 등 전반적인 생활을 지원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마주하는 수용자 중에 어렵고 절망하는 이들에게는 참된 용기의 말과 그들을 위해 드러나지, 알게 기도를 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저의 행위는 그들에 대한 사랑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저 자신을 위한 보속의 성격과 가족을 위한 희생의 성격이 짙은 것이 솔직한 고백일 겁니다. 그래서 가끔 순수성에 대해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계속 실천해 가는 것이 그분의 뜻에 조금이라도 따른다는 믿음으로 멈추지 말아야겠지요.

이래저래 두서없이 말이 많았네요. 늘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새벽에 기도드릴 때 신부님을 위해 매일 기도 올리겠습니다.

다음 미사 때 봐요.

2023. 04. 16.

바오로 올림



## 2023년 8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일시: 8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교정사목 휴대폰 번호: 010-3732-5093**



카카오채널

### ● 행사 알림

- 7월 3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 가톨릭회관 3층
- 7월 3일(월)~5일(수) 서울동부구치소 여사 2기 인성교육 / 서울동부구치소
- 7월 19일(수) 해밀 가족 모임 / 교정사목 센터
- 7월 22일(토)~23일(일) 청담동성당 후원회원 모집 미사 / 청담동성당

### ●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23/5/19~6/16)

2023년 5월~6월에는 이준범 베드로사별, 전대미수 헬레나, 청구성당 82명님께서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김균태 알베르토, 청구성당 9명님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 방법

### 1.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catholic-correction.co.kr>)

‘후원신청’을 클릭 및 오른쪽 ‘모바일 후원신청 QR코드’로 신청

### 2.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 전화로 신청하기 / 후원사업부 (02-921-5094)

### 3. 직접 은행에 신청하기

- 직접 자동이체 신청 시 후원사업부(02-921-5094)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아래 계좌로 이체 등록
- 은행 방문 시 준비물(신분증, 도장, 통장) 지참 후 아래 계좌로 이체 신청



모바일 후원 신청

###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

미납된 후원금을 지로로 납부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한 장으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절약됩니다.

(장당 210원~240원 수수료 부과)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회원분들은 **010-3732-5093** 교정사목 휴대폰으로 문자 부탁드립니다.